

광고만 금지하면 OK?... 비대면에 청소년 음주 주의보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 금지 주류 소재 콘텐츠, 청소년에 노출 업계, 광고 제한 규제 실효성 의문

최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청소년이 주류구매가 용이해지고 있다. 규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업계 영업 방식을 옥 짚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종전 규제 대상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은 유지된다.

또 주류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카스(Cass) 배 마라톤' 등의 명칭은 '오비맥주배 마라톤'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15세 미만 관람 불가였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 중 음주 장면 갈무리. 유튜브와 드라마 등 영상매체에서 청소년은 쉽게 음주장면에 노출된다.

매체를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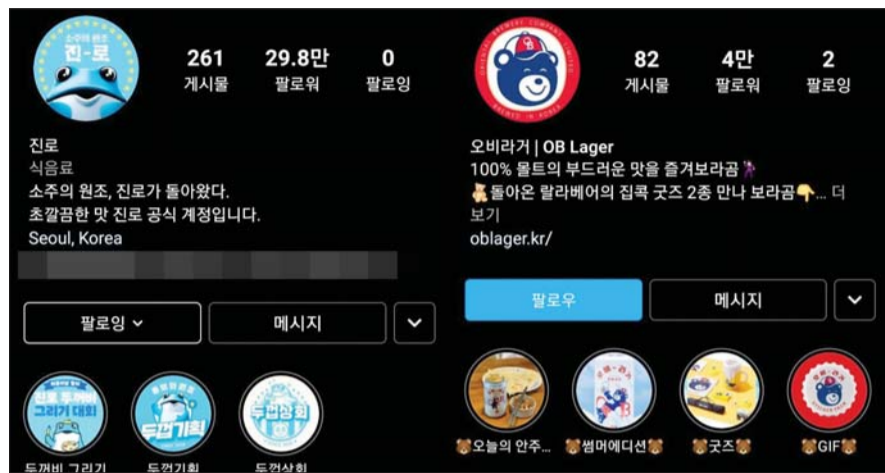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유흥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대해 복지부는 "주류 광고 기존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고 규제는 강화되지만 주류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와 채널이 다양해질 수

록 노출빈도는 늘어난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수천개의 주류 광고 영상이 게재돼 있고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최근 주류업계에서 자사 캐릭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SNS에도 주류 콘텐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SNS의 경우 주류 관련 콘텐츠어도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게 어렵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10대는 특히 SNS 이용이 활발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 SNS 이용빈도가 주평균 29.2회로 가장 높았다.

드라마·영화 속 음주 장면도 빠지지



하이트진로 진로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 (왼쪽), 오비라거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 팔로워가 수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않는다. 15세 미만 관람 제한 콘텐츠에서도 음주 장면 및 주류PPL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의 주류구매 접근성도 높아졌다. 코로나19사태로 확산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GS25는 최근 무인 주류 자판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직영점 중 야간 무인점포에 우선 배치한 뒤 내년에 전국 매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플러스'의 서비스 범위도 넓히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

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면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이 가족, 형제의 신분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주류 콘텐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광고 제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면서 "정부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아 기업들만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토스뱅크 9월 출범... 인터넷은행 격전 예고

'증자계획 성실한 이행' 조건 부과 금융산업 경쟁·혁신 가속화 기여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본 인가를 받으면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삼국시대'가 열린다. 토스뱅크는 빠르면 오는 9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케이뱅크,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세번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인가와 함께 토스뱅크에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디지털금융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토스뱅크는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최종 영업 준비를 거



토스뱅크 흥민택 대표가 9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스뱅크

쳐 이르면 9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금융 산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흥민택 대표는 본인이 직후 간담회를 갖고 "포용과 혁신의 은행을 표방하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1금융권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들이 은행을 떠올렸을 때 토스뱅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뱅크는 토스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기존 신용평가사(CB사)의 데이터에, 토스의 방대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대안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안정보는 기존 신용평가사가 측정하지 못한 데이터로 토스가 고객 동의

를 거쳐 축적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 직후부터 전체 신용대출 규모의 30% 이상을 금융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업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강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예상되는 여러 위험 요인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낮춰 나갈 방침이다. 높은 변별력의 신용평가모형으로 중·저신용자라도 건전한 고객을 선별하는 체계를 갖췄다.

고객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은 새롭게 설계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여유자금 운용, 목돈 마련 등 다양한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규칙을 설정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과 소비, 통장 잔고 관리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조건 충족 없이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크카드 상품인 경우 고객의 소비패턴에 따른 캐시백 혜택, 시즌별 혜택 변화 등의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 대신 단 한 장의 카드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토스뱅크 고객에게는 다양한 금융사 제휴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ATM 입·출금 서비스는 물론 수수료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20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를 기반으로 '원앱(One-app)'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1@

원자재 10% 오르면 물가 0.2% 뚝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의견 분분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불안해졌다.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배경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10%)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최대 0.2% (4분기 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원유를 중심으로 급락했지만 이후

빠르게 상승해 거의 모든 품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주요 전망기관은 원유, 구리,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중간재를 통한 경로,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한다.

/안상미 기자

쿠팡, 중소 식품기업 판로확대 '앞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홍보

쿠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추경민 쿠팡 정책협력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현재 수많은 국내 중소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들과 식품벤처센터가 입주해 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국내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의 로켓배송 입점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 식품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쿠팡의 로켓배송을 비롯해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당일배송으로 간편하게 전국 각지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판로확대와 함께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보탠다. 쿠팡은 중소 식품 기업들의 상품들을 널리 알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